

단일팀 함께 응원·판문점 성화봉송...남북 화해의 축제

급물살 탄 광주U대회 북한 참가

북한이 2015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광주U대회) 참가 신청서를 내면서 광주 U대회의 흥행을 이끌어낼 대형 이벤트 성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남북단일팀 구성이 성사될 경우 종합대회 사상 최초의 사레인 만큼 남북간 화해 무드 조성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북한의 대회 참가는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여부와 국제 정세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U대회 당일까지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8개 종목 108명 신청서 접수

통일부·법무부 승인 등 거쳐야

북한 선수단 참가 절차

북한이 지난 3일 전국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학

생체육협회 위원장 명의의 서신과 함께 공식참가신청서를 FISU를 통해 접수함에 따라 남북단일팀, 판문점 성화봉송, 북한 응원단 파견 등 굵직한 이벤트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단 대회 내외부적으로는 남북단일팀 구성에는 걸림돌이 없다는 게 광주U대회 조직위의 설명이다.

시는 지난해 7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으로부터 남북단일팀 구성을 공식 승인받았으며, 북한에서 8개 종목(육상, 다이빙, 기계체조, 리듬체조, 탁구, 유도, 여자축구, 핸드볼), 108명의 공식 참가신청서도 접수했기 때문이다.

다만 촉박한 대회 일정은 걸림돌이다. 다음달 14일이면 단체경기 조추첨이 열리고, 6월3일까지 개인(명단)엔트리를 마감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북한팀 참가 여부에 대한 통일부와 법무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조추첨 등이 마감된 이후에는 단일팀 구성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최소내달 14일 이전에는 단일팀 협의가 마무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사뻔 국제종합대회 사상 최초

탁구·육상 등 2~3개 종목 유력

남북 단일팀 구성 가능성

U대회 조직위는 여자축구

와 육상 일부 종목, 탁구 등에서 2~3개 종목을 추려내 남북단일팀을 구성, 남북평화와 화해의 상징을 담아내려는 계획이다.

단체종목인 여자축구는 우리나라와 북한의 실력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힘을 합한다면 메달권 내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이다. 탁구는 1991년 4월 일본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남북 첫 단일팀으로 꾸려 대회 우승까지 차지했다.

또한 육상 등 일부 종목은 세계 종합대회에서 단 한차례도 메달을 딴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선수단이 꾸려졌더라도 단일팀 구성의 명분이 있다는 게 U대회 조직위의 분석이다.

남북단일팀 구성 사례는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91년 4월 일본·우승)와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91년 5월 포르투갈·8강) 등 단일종목 2개 대회 뿐이며, 남북공동입장은 국내 2회, 국외 7회 등 총 9회다.

대회 흥행의 핵심 키 중 하나인 미녀군단으로 불리는 북한 응원단의 참가 여부도 관심이다. 북한의 응원단 파견은 부산 아시안게임(2002년)과 대구 하계U대회(2003년) 뿐이다. 지난해 열린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서는 북한 응원단 파견이 확정됐으나, 지방선거 이후 자치단체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인천의 소극적 태도로 무산됐던 만큼 운장현 광주시장과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U대회 조직위는 대회 이벤트의 하이라이트로 백두산과 한라산에서 채화한 성화를 인천각에서 하나로 합쳐(승화)해 광주로 내려오는 성화봉송도 추진 중이다. 성화가 판문점을 통과한다는 점에서 대회를 앞두고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할 초대형 이벤트로 분석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



北 미녀응원단 광주서 볼 수 있을까

2015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북한이 공식 참가 입장을 알려와 결과가 주목된다.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는 “북한이 지난 3일 전국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학체육협회 위원장 명의의 서신과 함께 공식참가신청서를 FISU를 통해서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03년 대구에서 열린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가한 북한 응원단이 고려항공 특별기로 출국하는 모습. /연합뉴스

■ 남북 스포츠 협력사례

□ 광주U대회 북한 선수단 출전 종목 현황

출전 종목	8개 종목, 108명 (선수 75, 임원 33)
개인	육상, 다이빙, 기계체조, 리듬체조, 탁구, 유도
단체	여자축구, 핸드볼

* 대한민국 선수단, 21개 전 종목 출전 예상

□ 단일종목 남북단일팀 구성사례

탁구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일본 지바·91년 4월) * 대회 우승
축구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포르투갈·91년 5월) * 8강 진출

□ 남북 공동입장 사례

국내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2003년,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국외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개막식 2003년, 아오모리 동계 아시안게임 2004년, 아테네 올림픽 2005년, 마카오 동아시아게임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2006년, 도하 아시아경기대회 2011년, 도하 국제탁구연맹 '피스 맨드 스포츠컵'

40여 단체·대학 등 참여·지원 협력회의

대회기간 인접 5개 시·군 순환버스투어 운행

광주시 성공 개최 준비 분주

광주시는 광주U대회의 성공을 위해 범시민적 참여와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또 인접 시·군과도 순환투어버스를 운행하는 등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광주U대회에 시민, 대학생, 시민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40여개 기관·단체·대학 등과 협력회의를 열고 성공개회를 다짐했다. 시는 시민 서포터스 5만명 모집과 대회기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시행하는 차량 2부제, 버스전용차로제 확대 시행 등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시는 특히 광주U대회 기간에 열리는 ‘청년 문화난장’에 지역 내 대학 동아리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보고, 대학 총학생회장, 동아리회장들과 별도의 모임을 하는 등 후속 대책을 모색한다.

광주 U대회 조직위는 대회 불 조성을 위해 대회 마스코트 ‘누리비’의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한 카카오톡 테마를 제작, U대회 홈페이지와 블로그

를 통해 배포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집중 공략하고 있다.

누리비 카카오톡 테마는 시작화면과 채팅창 등 모든 페이지 화면에 누리비의 귀여운 이미지가 나타나도록 디자인됐다. 주요 아이콘도 엠블렘과 누리비의 이미지를 실어놓았다. 누리비의 카카오톡 테마는 공식 홈페이지(http://www.gwangju2015.kr)에서 내려받아 카카오톡을 실행하고 설정에서 해당 테마를 적용하면 된다.

시는 또 오는 7월 U대회 개막과 맞춰 인접 5개 시·군을 순환하는 버스투어를 운행한다. 개막 시기와 맞춰 아시아문화전당이 부분 개관해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동시에 인접 5개 시·군을 연계한 버스투어를 운행해 지역 문화관광 자산 활용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U대회 손님맞이를 위한 광역순환버스투어는 각 지자체가 예산을 확보하고 관광지 등 다양한 코스를 마련한다. 광주시와 상생협약을 한 인접 시군은 나주시와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 함평군 등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누리예산 바닥 정부, 예비비 즉각 집행하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전국의 교육감들이 정부의 누리과정(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예산 지원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 “목적예비비 5064억원을 즉각 집행하라”고 압박했다.

문 대표는 지난 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만약 예산 집행이 늦어져서 누리과정이 중단되는 일이 생기면 국민과 함께 대정부 책임 추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누리과정 순역액은 중앙정부가 목적예비비 5064억원을 편성해 지방교육청에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부담금 지원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책정돼 있던 목적예비비 지원도 늦어져 일부 지역은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1~2월분만 편성했던 광주는 이미

어린이집 보육 중단 위기

문대표·교육감들 촉구

정부 “지방서 우선 편성”

예산이 바닥났고, 서울·인천·제주 등도 3월분까지만 편성돼 있어 예비비 지원이 늦어질 경우 ‘보육료 대란’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시도교육청이 급한 대로 2~3개월분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상황이라 광주는 2월로 이미 예산이 바닥났고, 3월이면 서울·인천·제주 등 여러 곳에서 예산이 바닥난다”며 “목적예비비 5064억원을 배분해주지 않으면 보육비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른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

반면 정부는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전국 17개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주재하며, “학부모 불안과 혼란을 예방하고 자질없이 누리과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 부총리는 “정부는 목적예비비를 편성하고 지방에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등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회와 협력해 전체적인 지방교육재정 부족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지역 자산1위 최고의 새마을금고

2015 광주시 골목상권 정책자금대출 출시!!

각종 도·소매업/음식점 주점업/서비스업 등

식당, 학원, 노래방, 당구장, 카센터, 사진관, 컴퓨터수리, 세탁소, 세차장, 미용실, 피부관리, 방앗간, 스포츠시설, PC방, 전통시장상인 등

연 이 율 1.25 ~ 1.4%

대출기간 3년/5년

최 고 2천만원

※36억 선착순 접수 (기존 대출자도 가능)

□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사업장 및 거주주택)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확인서, 신분증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